

합천농협,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 정병철 기자 | ㉠ 승인 2026.06.11 11:19



합천농협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 농어촌공사 합천지사와 함께 영농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대학 회원들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해 묘산면 30명, 봉산면 30명으로 나눠 양파 수확 및 농작업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자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나상정 합천농협 조합장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농협과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일손돕기에 참여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철 기자 jbc6768@newsgn.com

